

## 호주 해변 수백 마리 새 사체의 원인은



호주 유명 해변에 수백 마리 새들의 사체가 떠올라 해변을 찾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데일리 메일 호주판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새들의 사체가 발견된 해변은 본다이 비치, 맨리 비치, 크로놀라 비치이다. 해변에 갔다가 새들의 사체를 발견한 지역 주민들이 사회정보망서비스(SNS)에 사진을 공유하면서 미스터리한 죽음이 알려졌다.

호주 빅토리아 지역에서 새들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단체인 '버드라이프 워남블'의 의장인 피터 바렌드에 의하면 이 새들의 죽음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였다.

이 새들의 종류는 쇠부리습새(Short-tailed Shearwater)이다. 이들 습새는 북구 알래스카에서 겨울을 보낸 후 산란기가 되면 남쪽으로 1만 4,000km를 여행하여 호주 남부 빅토리아 주 연안에 도착한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알래스카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들 습새의 먹이가 되는 크릴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해수면이 아닌 더 아래쪽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먹이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습새는 결국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 배가 고파서 죽게 된 것이다.

바렌드는 "보통 3만여 마리의 습새가 산란을 위해 머무는 빅토리아주 포트 페어리 지역의 그리피스 섬에 최근에 도착한 습새의 개체수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아 그 심각성이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호주까지 겨우 도착해 산란을 했지만 태어난 아기새들은 또다른 '재난적 상황'에 죽음을 맞이하고 해변에서 사체로 발견된다. 어미새는 먹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기새들에게 먹였는데 사실 어미새가 물어온 것은 먹이가 아니라 해변에 밀려온 플라스틱 조각들이었다. 결국 이들 습새는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고 호주까지 날아 왔어도 결국 환경오염으로 그 개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

바렌드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해변에서 죽어가는 더 많은 새들의 사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소방차 타고 예식장 도착한 신부

지난 3월, LA카운티의 한 예식장. 예식 시간은 임박했는데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랑은 초조하게 신부를 기다렸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 한 대가 들어왔다. 그 안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타고 있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와 들러리를 소방차에 태우고 예식장으로 질주했다. 소방대 호위 덕에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추어 식장에 도착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신부 줄리 고먼은 몇 주 후 신부는 소방국 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LACFD로

보내왔다. 사진에는 "내 결혼식을 구조해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적혀 있었다.

보내왔다. 사진에는 "내 결혼식을 구조해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적혀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이어 결혼식에 늦은 신부까지 구조(?)한 소방국의 사연에 LA카운티 주민들은 세심한 대처였으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차가 오용됐다고 지적했다.

셰인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신부를 결혼식장에 데려다 주려고 사이렌을 울린 거냐?"며 LACFD를 비난했고 지역 주민 케리 위슬러는 "명백한 세금 낭비"라면서 "체증이 심한 도심 교통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신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소방국 측은 "사이렌은 예식장에 도착해서 울린 것"이라며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A카운티소방국(LACFD)은 15일 교통사고로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갇혀 오도 가도 못하던 신부가 소방차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른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지난 3월 2일 이곳 소방국 대원들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2중 추돌사고가 난 도로는 양방향 모두 통제됐고, 소방국 대원들은 현장 정리에 나섰다. 그러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러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는 여성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원은 "리무진을 타고 결혼식장에 가던 신부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막혀 식장까지 걸어가는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도움 방법을 찾던 대원들은 현장 정리를 마친 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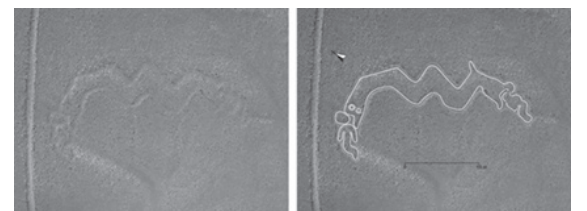
## 최대 미스터리 '나스카 라인' 무더기 발견

세계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인 거대 지상그림(geoglyph)이 페루 남부 사막에서 새롭게 발견됐다.

최근 일본 야마가타대학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고해상도 항공이미지 분석과 현장 탐사를 통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나스카 라인 143개를 발견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39년 하늘 위에서 처음 확인된 거대한 지상그림인 나스카 라인은 태평양과 안데스산맥 사이에 위치한 나스카평원 곳곳에 그려져 있다. 고대 나스카인들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숭이, 도마뱀, 고래 등 동물을 비롯 각종 기하학적 도형까지 현재까지 수백여 개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나스카 라인은 기원전 100년~서기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상한 모습의 인간 형상과 뱀, 새 등이 그려져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나스카 라인은 2개의 머리를 가진 뱀을 보여주는데, 이 뱀



은 인간 모습의 두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다(사진).

연구를 이끈 아사토 사카이 교수는 "새롭게 발견된 나스카 라인은 5~100m 정도 크기"라면서 "사람, 원숭이, 파충류, 추상적인 디자인 등 기존 나스카 라인처럼 다양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나스카 라인은 검은색의 표토를 제거하고 안에 있는 밝은색 모래를 드러내는 형태로 그려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대인들이 왜 하늘에서 봐야 제대로 모습이 보이는 나스카 라인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이 때문에 달력설, 목초지 경계선 심지어 외계인 관련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